



윤리경영의 시작은 인간존중 경영

협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를 갖고, 총회전 세미나로 유한킴벌리 문국현 대표를 초청해 '21세기 메가트렌드와 뉴패러다임 - 윤리경영과 국제경쟁력 혁신사례' 라는 제하의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다음은 문 대표의 강연중 윤리경영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미 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21세기 메가트렌드》란 책에서 일찍이 21세기는 환태평양시대 특히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가트렌드 속에서 동북아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메가트렌드에 발 맞춘 윤리경영의 확립 요즘도 차떼기를 비롯해 정계의 압력을 핑계로 수백억, 수천억원씩을 편법, 불법으로 빼돌린 유수의 재벌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도지수가 60여 개국중 50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분야가 바로 윤리경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사회의 국가의제인 지도층이 존경받고, 시장을 개척하는 벤처기업과 같은 프론티어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평화와 사회통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그럴려면 부정이 없어야 한다. 부정이 없는 직장엔 노사분규가 심할 리가 없고, 부정이 없는 사회에서 기업이 존경받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너무 기술만을 추구하는데, 고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고기술 위에 고신뢰가 있어야 하고, 고신뢰는 종업원, 지역사회, 대외투자자 모두의 신뢰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고신뢰가 축적될 때 고성과 사회가 오고 새로운 경쟁력이 창출될 것이다.

간단히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때 80%에 이르던 시장 점유율이 80년대에는 18%까지 떨어져 적자가 나고, 공장은 폐쇄직전이었고, 강경노조에 본사가 점거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고나서야 무엇이 이런 불신을 가져왔는가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 반성끝에 개혁을 한 지 8년이 지났다. 이제는 8개

사업부문에서 한때 다 내주었던 시장을 거의 다 찾아왔고 나아가 김벌리클락크 동북아시아 경영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경쟁력의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원천은 뉴패러다임의 도입이었다.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평생학습 체제 수립, 작업환경 혁신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였으나,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투명 윤리경영의 확립이었다. 그러기 위해 잘못된 과거 관행은 과감하게 청산하였다. 윤리경영을 표방하며 사장부터 판공비와 접대비를 안 썼으며, 대외적인 술이나 골프접대 금지는 당연한 것이었다. 리얼타임의 ERP도입으로 경영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해 매달 1일 아침이면 전월의 실적이 전직원들에게 보내졌다. 결론적으로 유한킴벌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지식경영자, 기술전문가로 만들어, 인적자본과 신뢰자본을 구축한 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성실성과 윤리성으로 차별화에 성공해야 성공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핵심이념, 가치와 비전을 기업내외 고객들과 나누고, 이를 실천하는데 성공한 기업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실천은 바로 성실, 정직, 투명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이다.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종업원을 통합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벤처CEO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벤처기업인은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에서 벗어나 사내와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경영자(Chief Education Officer), 윤리경영자(Chief Ethics Officer)가 돼야 한다. 직원교육과 통합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윤리·환경경영을 추구해야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CEO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